

‘착한 자금’ 모으는 카드사... ESG채권 발행 봇물

사회공헌·자금조달 두토끼 효과 현대카드, 올 4500억 규모 발행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으로 KB국민·신한 각 1000억 조달

카드사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발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수요가 커져 저금리 국면에도 흥행 가능성이 높고, 기업의 사회적 임팩트 활동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1석 2조’라는 판단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이달 ESG채권 중 하나인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총 4500억원 규모이며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1년2개월에서 10년 만기인 채권이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2400

〈ESG채권 발행 현황〉

카드사	ESG채권 발행규모	특징
현대카드	4500억원	-1년2개월에서 10년 만기.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 금융서비스 활용
KB국민카드	1000억원	-3년1개월 만기 600억원, 4년 만기 400억원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점 신용판매 조기자금에 활용
신한카드	1000억원	-3년 만기 500억원, 5년 만기 500억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활용

/각사

억원 규모로 그린본드를 발행한데 이어 올해도 발행한 것.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 금융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올 상반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

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지원하고자 ESG채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6월 3년 1개월 만기 채권 600억원, 4년 만기 채권 4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ESG채권을 발행했다. 당시 채권으로 조달한 자

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사용했다. 신한카드 역시 지난 5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객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및 경기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ESG채권을 조달한 바 있다.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ESG채권은 공공이익을 강조한 특수목적 채권이다. 특히 ESG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사회적 가치 증대, 친환경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착한사업’에만 활용처를 제한한다.

카드사들이 ESG채권 발행에 나서는데는 기관의 투자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ESG채권 발행규모는 2017년 5억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0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119억달러가 신규발행되면서 지난해 발행규모를 추월할 전망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속가능경영이 금융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카드사들이 ESG채권 발행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ESG채권 발행 배경에 카드사들의 이미지 개선 효과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ESG채권으로 발행한 자금을 공익적 사업에 활용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카드사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연동되는 작용을 한다”며 “앞으로도 ESG채권 발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서민금융 의무 출연,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은행·보험·카드사서도 재원 출연

서민금융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가 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다루는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를 개편해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의무도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토록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 부과대상을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다.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를 개편해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 관리토록한다. 휴면금융자산을 이관한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의

무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하고,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해 원본사용금지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 이관 전 금융회사의 대고객 통지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통지대상을 30만원 초과에서 10만원 초과로 확대한다. 이관 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주민 찾아주기 활동도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5@

우리銀,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국내 최초 해외영업점에 도입

우리은행이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글로벌 통합 자금세탁방지(AML·Anti Money Laundering) 시스템을 구축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글로벌 컨설팅사인 PwC를 통해 해외지점 컨설팅을 완료했다. 이후 글로벌 AML전문 솔루션 제공업체인 SAS사를 선정해, 해외 9개 지역 지점을 대상으로 새로운 AML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달 들어 7일 싱가포르, 시드니 지점 오픈을 시작으로 14일에 도쿄, 런던, 홍콩, 두바이, 바레인, 다카 지점과 인도 지역본부(첸나이, 구르가온, 뭄바이지점)에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

우리은행의 ‘글로벌 통합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해외영업점에 Anti-TBML(무역기반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RA) 기능을 도입했다. KYC(고객 알기 제도), CRR(고객위험평가), TMS(거래모니터링) 등 기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서울 소공동 우리은행 본점.

최고 수준으로 구축하였다. 또한 국외 AML 포털을 구축해 해외지점의 위험요소 관리 및 현황 점검·분석 통합기능을 통해 본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해외지점뿐 아니라 10개 해외법인도 AML 체계 진단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내년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글로벌 통합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영석 기자

DGB금융, 굿네이버스와 글로벌CSR 맞손

기부금 총 3만달러 전달

DGB금융그룹은 NGO굿네이버스와 함께 글로벌 CSR 사업 추진을 위해 협업을 맺고,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을 넘어 세계를 향한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DGB글로벌 봉사원정대를 발족하는 등 세계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DGB금융그룹은 국제구호개발단체인 NGO굿네이버스를 통해 좀 더 전문적으로 영역을 넓혀 활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DGB금융그룹 8개 계열사 기부금을 재원으로 총3만달러의 기부

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캄보디아 지역 아동들을 위한 학교 개·보수 사업, 방역물품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한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등에 학교 및 구호단체 지원, 코로나 방역물품 기부 등 총6만불 규모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연대가 무엇보다 절실해지는 시점에 전문 단체와 협업해 체계화된 글로벌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로 했



서울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김태오 DGB금융그룹회장(오른쪽)이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GB금융그룹

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데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케이뱅크 “최고 연 10% 적금 가입하세요”

케이뱅크는 우리카드와 공동으로 최고 연 10%의 ‘햇딜적금X우리카드’ 적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최근 6개월 우리카드 이용 실적이 없는 고객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사용 조건만 충족하면 연 최고 10%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대상카드는 ▲카드의 정식 언택트(UNTACT) ▲카드의 정식 디스카운트(DISCOUNT) ▲카드의 정식 포인트(POINT) 등 3종이다.

기본 금리는 연 1.8%다. 케이뱅크 신규 회원이거나 적금 가입 시 마케팅 동의를 선택하면 0.5%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금 가입일 직전 6개월간 우리카드(신용)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은 경우 사용 실적에 따라 연 4.2% 또는 연 5.7%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



다. 해당카드로 월 1건 이상 자동이체를 설정하거나 교통카드 결제를 6개월 이상 할 경우 연 2.0%의 우대 금리를 추가로 적용 받아 10% 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월 납입액은 최대 20만원으로 선택순 2만좌 한정 판매다. 자세한 금리 조건 확인과 상품 가입은 케이뱅크 앱에서 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카드, 디지털인재 등 신입사원 공채

우리카드가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총 30여명 수준으로 오는 23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디지털 역량 보유 인재를 적극 채용하며, 특성화고 내년 졸업예정자에 대한 특별 전형도 동시에 진행한다.

채용 과정은 서류, 필기, 실무면접, 인성검사·건강검진, 임원면접 순으로

진행한다. 특히 필기 전형 시 응시자 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면접 시에도 면접자와 지원자 사이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당국의 방역수칙 이상으로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빅테크 업체와의 경쟁 등으로 카드업권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그

럼에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평소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청년 고용 시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우리카드 2020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의 지원 방법 및 전형 절차 등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카드 홈페이지 내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석 기자